

성경적 결혼관

가정은 모든 인류사회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면 자연히 사회, 국가, 교회도 흔들리게 된다. 사회학자들은 "현대 가정이 혼란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미국 백악관에서 'family' 즉 가정(가족)에 대한 학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100년 전이라면 "What is family?(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논란거리도 되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부터인가 명확히 답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성 혁명, 이혼의 급증, 다중 부모, 이복형제, 결혼을 주장하는 동성애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리라. 학회에서 내린 가족에 대한 결론은 '한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다.

가정의 기초와 출발점은 다름 아닌 결혼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옛 가치들이 도전받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 그러 스도인들조차 무엇을 믿어야 할지,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바로 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다.

결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 결혼을 인류 번식만을 위한 합법적 짝짓기 제도로 여긴다면 큰일이다.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적 결합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결혼은 보다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식에서 서약을 통해 성립되며 사회의 법적 개념으로는 혼인신고를 통해 인정받고 보호받게 된다.

그렇다면 결혼의 성경적 개념은 무엇인가?
첫째,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창세기 2:18-24)'는 점이다. 인간이 편의상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편리하고자 만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불편하니까 없애버려도 된다고 말한다. 마치 약이 결혼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 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마태오 22:37). 결혼에서의 목적은 결국 가정을 이룬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데 있다.

사람들에게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혹은 "왜 결혼했는가?"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을 들게 된다. 하지만 대체로 요약하면 '행복하기 위해서'이다. 행복을 원하는 게 나쁜 짓은 없다. 다만 그것이 결혼의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결혼을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니,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해 결혼한다고 말한다. 사실은 바로 '나만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으면서 말이다. 그러다보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자신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면, 아마 이렇게 항의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 살라는 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엇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어떤 운동선수로 성공하려면 그 운동법을 배우고 규칙을 숙지해야 한다.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경우 악기는 물론, 오케스트라와 지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공하여 행복하고 싶다면 결혼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역할을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장 빠른 길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 바로 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다. 결혼의 본질은 알지도 못한 채, 나의 행보를 추구한다면 성공적인 결혼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결혼에서 행복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행복에는 무관심한 분이랴. 생각하면 오산이다. 창세기 2장을 펼쳐보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외롭지 않게 서로 위로하고 붙어주며 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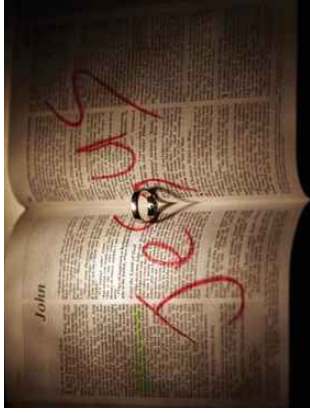
자로서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해 주심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이 별도로 부연되지 않은 건, 그것이 이미 창조된 뜻 가운데 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인간의 궁극적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때도 역시 같은 이치로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차가 고장이 났다면 그 차를 만든 회사의 서비스 공장으로 갈 것이다. 아무래도 그걸 만든 사람이 잘 알고 잘 고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갈지 분명해진다. 그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언젠가 강의를 하던 중, "여러분은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인은 친정으로 가고 남편은 술집으로 갑니다"라는 답이 나왔다. 한바탕 웃고 남겼는데, 생각해보니 현실과 다르지 않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상담실을 찾거나 정신과를 가기도 하고, 마침

내 는 변호사를 구해 가정법원으로 가게 된다. 인터넷에도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 결혼을 하나님 이 만드셨다는 걸 말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중시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문제를 살펴보고, 그 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노력해도 당사자 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때 성경적 결혼관에 입각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

결혼의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점이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젊어서 결혼할 짝을 버리는 건 하나님의 인약을 잊어버리는 것 과 동일하다(잠 2:17)고 했다. 아내에게 진실하지 않은 남편들을 책망하는(말 2:14) 말씀도 나와 있다. 동반자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이 두 구절은 결혼의 언약적 측면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언약은 서로의 성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답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창 2:18)이다. 그러나 단지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아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도 외롭다는 걸 안다. 그렇다 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동반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5장을 참고해보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러다가 5장에 이르러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같아야 한다고 비유로 말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함 같이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물론,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과 감성. 그리고 의사 소통 능력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그의 분부하신 일을 맡아 수행하는 데 쓰인다. 또한 인간 상호간에 관계를 맺으며 협력하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필수요건이 된다. 특별히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큰 계명 말이다. 이를 지키고 수행하는 기본적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그 출발점은 결혼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기사랑'에 심취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마치 현대 문화의 기본 전제가 되어버린 듯 하다. 오죽하면 "스스로 강강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신한 사람들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는 말씀조차 개인주의적 시각으로 영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식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과 재물을 너무 사랑했던 젊은 부자에게 하셨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의미로 말이다. 말씀의 골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간결하고 명쾌하다. 현대 현실에서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강단에서조차 "성경 모든 곳에서 '간강한 자존감'을 가르치고 있다"는 듯이 설교되고 있다. '자기애(self-love)' 이론이 개인주의를 숭배하는 문화로부터 나왔다는 걸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계명처럼 여기기까지 한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편한 대로 인간 마음에 대한 이상한 진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문화가 제시하는 치료법, 즉 '자기 사랑을 더욱 증진시키는 것'은 실제로는 마음의 병을 더 심화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자기 사랑에 몰입하는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는가?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가? 요즘 결혼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몰입하고 있는 상태방을 바라보면서 결혼을 주저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않은 것 같아 미심쩍다. 문제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금과옥조(?) 같은 메시지는 나만 들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부부는 자기에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도 사랑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삼위의 인격이 온전히 하나인 하나님을 인간 차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두 부부가 하나 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세상에 보여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예는 부부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적으로 느끼게 해 주자는 말이다.

가정 사역의 바탕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야 한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예외로 한다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모여 이루어진다. 바른 교회의 진체는 바른 가정 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 결혼관이 바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크리스천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6



홍규범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장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신학석사(M. Div.),
목회상담학박사(M. Min.), 실천신학교수
한국성경적 상담 연구원장
사랑교회 협동목사

저자: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비이블리디스, 2008)
역사: 위기의 심대 기쁨의 심대(플로팅, 디모데, 2004)
치유와 회복의 탐방지(플로팅, 디모데, 2007)